

북남관계의 근본적해결을 위한 지침

오늘 우리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과감히 벌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

대결적인 자세와 태도부터 변해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상대방에 대한 자제와 태도는 북남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을 시비중상하면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위치에 세워놓고 관계개선에 대해 논하자고 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동족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상대방에 대한 자제와 태도를 고치는것이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선결적문제로서 나신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자주의 입장을 실천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를 바로 해결하자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장장 70여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의 분열사는 남조선당국의 고질적인 외세의존과 사대적근성이 북남관계를 해치는 장애물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있다.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북남관계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다 구걸하는것은 외세의존과 사대적근성의 발로이며 북남관계문제를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민족자주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주는 곧 애국과 애국, 통일과 반통일을 가르는 시금석이기에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는것이 북남관계의 근본원칙이라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은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선포한 북남선언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가 오늘처럼 심각한 교착상태에 처하지는 않았을것이며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업은 멀리 전진하였을것이다. 북남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자세는 곧 북남관계와 통일에 대한 립장과 자세이기도 하다.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할 때 북남관계가 화해와 신뢰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힌 강령적지침, 불멸의 대강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자주의식을 지켜야 한다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기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사대주의, 외세의존사상과 결별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당하게 된것도 결국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숭배하고 섬기는 사대주의때문이었다. 조국이 해방된후에도 숭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력대 보수집권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침략정책에 추종하여 반통일적인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아왔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사대주의, 외세의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북남관계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데그런데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아직도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풀려보려고 하고있다. 이것은 말로써 배운 친미사대적근성의 발로로서 사실상 민족의 운명과 전도가 달려있는 북남관계문제를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용기만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를것은 어리석은것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남의 나라와 민족을 희생시켜 저들의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외세는 오늘날도 북남사이의 해결을 부추기면서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꾀하고있다. 오늘 북남관계문제,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계속 복잡하게 번져지고있는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과 떼어놓고 말할수 없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현실이다. 현실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반대배격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주의식을 쫓먹는 사대와 외세의존사상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리은성**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남녘의 량심적인 목사와도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며

1980년대말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와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에는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었다. 침략적인 외세는 반제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옹호고수해나가는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데 공적의 예봉을 돌리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으며 남조선당국자들도 그에게 적극 추종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더욱 집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도 공화국은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여나갔으며 이것은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통일기운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남조선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 문익환과 백기완을 비롯한 애국적민주인사들은 북남사이에서 외세를 몰아내는 문제와 분열을 청산하는 문제 그리고 북남각계의 통일방안 등이 솔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나갔다. 문익환목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1989년 3월 25일 평양을 돌리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더욱 집면에 내세웠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을 애국애족의 장기로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들을 통일 의 사절로 뜨겁게 맞이하고 따듯이 보살피주시였다. 3월 27일 문익환목사를 접견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의 봉수교회당을 방문한 남조선의 문익환목사 (왼쪽에서 네번째, 1989년)

는 그가 평양을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시고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주이자 통일이고 통일이자 민주라고 말해온 문익환목사의 견해를 긍정해주시면서 반과좌반독재민주화, 반외세반침략자주화, 평화적 통일 의 새이 하나이며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이 세가지를 실현하는것이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 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과 조국통일은 반드시 련방제방식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련방제국은 철저히 통일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거족적인 위업인것만큼 누구든지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찾아오겠다며 개별적으로라도 오는것을 환영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문익환목사는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련방제통일방안이 아주 훌륭한 통일방안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 1일 또다시 문익환목사를 만나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밝혀주시였으며 그가 평양에 체류하는 기

얼마전 남조선의 제주도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기원하는 《2021 제주평화음악회》가 진행되었다. 《평화, 마을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음악회에서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공화국의 관련 악작품인데 특히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가 관현악으로 연주되어 관람자들의 대접찬을 받았다고 한다. 김원균평창 평양음악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제일동포 예술인의 장세남독주 《통강가나리》도 특유한 음색과 경쾌하고 박력있는 연주 로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관현악의 대접찬을 받았다. 음악회를 본 관람자들은 관현악의 주요특징은 민족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성을 담아내고 대중성을 표현한것이다. 특색있는 민요가락을 협주곡형식의 관현악으로 편곡하여 문화적 특성을 살렸으며 이것

조선반도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 진행

조선반도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를 본 관람자들은 관현악의 주요특징은 민족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성을 담아내고 대중성을 표현한것이다. 특색있는 민요가락을 협주곡형식의 관현악으로 편곡하여 문화적 특성을 살렸으며 이것

은 남조선에서는 시도해보지 못한 독특한 형식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라고 한다. 음악회관계자는 문화의 힘으로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 민족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남과 북이 함께 제주도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를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토로 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적존엄을 지키려는 여성 의지의 본질

조선의 의로운 청년학생들이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던 광주학생 사건이 있는 때로부터 92년이 된다. 1929년 10월말 광주-라주사이의 련차안에서 일본인중학생이 한 조선녀학생을 회통하여 모욕적인사를 던진것이 계기로 되어 일어난 광주학생사건은 오래동안 쌓이고쌓인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조선청년학생들의 울분과 적개심의 폭발이었다.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일본중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일제경찰들의 만행에 격분한 광주시안의 전체 조선인학생들은 11월 3일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대중적반일시위에 떨쳐나섰다. 광주 학생이 지쳐버린 투쟁의 불길은 평양, 신의주, 함흥, 개성,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도처에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라번지며 급속히 확대되었다. 전국 조선청년학생들은 도처에서 일제경찰들을 맞받아 류혈적인 투쟁을 벌였으며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대량검거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이나 싸움을 계속하였다. 일제가 줄여서 낸 자로에 의하더라도 192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투쟁에는 전국각지 194개 학교의 6만여명 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광주학생

사건은 조선청년학생들과 우리 민족의 고통을 모르는 독립자주정신을 시위한 투쟁으로 력사에 남아있다. 그때로부터 90여년이라는 거나간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그날에 올린 광주학생들의 피라는 절규는 오늘날도 이 땅 삼천리에 메아리 되어 일본의 침략범죄를 천백 배로 결산하고야말 우리 민족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 고있다. 오늘 피로 얼룩진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의 행동은 구도에 달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일본은 도쿄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빼앗아 자국령토처럼 표기해놓는 지도를 올려놓고 올림픽소개를 관물에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하였는가 하면 피대구, 부산 등 전국도처에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라번지며 급속히 확대되었다. 전국 조선청년학생들은 도처에서 일제경찰들을 맞받아 류혈적인 투쟁을 벌였으며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대량검거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이나 싸움을 계속하였다. 일제가 줄여서 낸 자로에 의하더라도 192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투쟁에는 전국각지 194개 학교의 6만여명 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광주학생

것이 바로 일본의 침략적근성이었다. 일본의 로골화되는 군국주의부활과 채찍책동은 우리 겨레의 반일감정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채찍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친일보수세력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지난 1960년대 매국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체결을 반대하여 일어난 각계층의 대중적인 투쟁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뿐만아니라 박근해보수 《정권》이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합의》하고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굴욕적으로 체결하였을 때에도, 일본이 남조선대법원의 일제조선인강제 징용피해자배상판결 등을 결고 수출규제조치에 나섰을 때에도 항의시위에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비롯하여 대중적인 반일, 반보수투쟁이 벌어졌다. 침략과 매국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와 존엄에 살려주는것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조선민족의 의지이고 강렬한 지향이다.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것이며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끼친 엄청난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강영진**

인생은 어떻게 빛나는가. 뜻이 높아서인가, 삶이 비범해서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류영준 선생의 인생길을 더듬으며 찾고자 한다. 류영준 선생은 1890년 11월 평안남도 대동군의 어느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의 살림은 그를 열다섯살의 나이에 궁성 판비로 팔려가는 길로 떠밀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봉건왕조를 헐박하여 《을사5조약》을 남조하였고 일제의 강압적인 조선침략과 《한일합병》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던 조선봉건왕조의 멸망을 눈앞에

한 여성민주인사를 참된 애국의 길로 (1)

기에 들어가자 선생은 마흔이 다된 나이에 결혼을 하여 딸 하나를 보았다. 선생은 불온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리혼을 당한 후에도, 창세기명을 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반일의 지조만은 버리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보천보를 다녀온 리운형선생으로부터 김일성장군님께서 보천보에 진출하시어 일제놈들을 쳐부시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다. 일제의 살벌한 탄압을 피해 가정집사에 파묻혀있던 선생은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조선의 녀는 살아있

다,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 김일성장군님만 믿으면 조선은 꼭 해방된다며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던 리운형선생의 이야기가 힘을 얻고 다시 류영준선생님과병원을 개설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놈들을 죽치고계시니 꼭 조국이 해방될 날이 올것이라며 살아서 그날을 봐야 한다고 신심을 안겨주곤 하였다. 남조선에서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깨끗한 민족적량심과 애국의 녀를 지니고 반동들의 책동에도 굴함없이 자기의 지조를 지키었다. 투쟁의 길을 모색하던 끝에 선생은 공산당사람들

과 손을 잡고 싸워보려고도 하였지만 그리스도교를 믿고 과거 민족주의 운동에 참가한 리운형 선생은 리운형 선생의 뜻을 좇을수없었다. 선생은 오랜 고민 끝에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하지만 신민당이 3당합동문제가 제기되자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걸을수없었다. 선생은 리운형 선생의 뜻을 좇을수없었다. 선생은 오랜 고민 끝에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하지만 신민당이 3당합동문제가 제기되자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걸을수없었다. 선생은 리운형 선생의 뜻을 좇을수없었다.

활동하였다. 그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긴 외세와 민족반역자들은 부당한 이유를 내걸고 그를 탄핵하여 체포수감하였다. 선생을 모해하려는 놈들의 모략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우습해졌다. 놈들은 류영준선생과 같은 경력이 복잡한 녀자가 어떻게 녀명위헌장시위를 할수 있는가고 여문을 퍼뜨리면서 그가 차지한 공직에서 스스로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과연 이 어지러운 남조선에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류영준 선생의 안타까운 이 심정을 터놓을 곳은 남녘 땅 그 어디에도 없었다. **본사기자**



류영준선생